

# 佛心 만큼 공약 실천의지도 큰 사람 되소서



도 수상했다. 이런 인연으로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원순 당선자는 언제나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어서 도법 스님에게 방을 하나 구해 달라고 청한 바 있다. 이때 도법 스님은 귀정사(歸政寺)라는 절을 소개해줬다. 정치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절을 소개받고 박 당선자는 ‘이것이 운명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시정운영 교계 의견 청취

박원순 당선자가 발표한 불교 관련 공약은 조계사가 포함된 전통문화역사 마을 지정과 서울시 불교문화재에 대한 방재 시스템 구축 및 복원 지원 등이다. 또한 연동행사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불교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현

공평무사한 시정 공약한 만큼 불교계서는 상생하는 시장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통 사찰과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시장에 당선되면 불교계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를 위해 조계사가 포함된 삼정동 가회동 인사동 청계천 등을 한국의 전통문화 축으로 연결, 전통문화역사 마을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의 원활한 행행을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당선자는 불교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묵타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 “(유마경)에 중생이 아프니 보살이 아프다는 말씀이 있다. 고단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불교 정신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종교 전문가의 시장 직속 배치 등 종교편향 방지 정교분리 강조하길

정부의 사회갈등을 소용 부재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운영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각해졌으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발표한 ‘종교평화선언’에 주목했다.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평화선언을 발표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 활동의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박 당선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공평무사한 시정을 펼치면 종교간 갈등 유발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종교화합과 소통을 위해 종교계에 식견이 있는 인사를 시장 직속으로 배치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서울시장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종교 편향 문제는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4일 조계사가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자 간담회’에 참석한 남윤인숙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잠시간 설명했다.

### 불교계 역할도 기대

박원순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전통사찰과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해 시가 노력해야

불교계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그는 또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서울시가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 대불청 “새로운 공직자상 기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불교계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10월 27일 논평을 내고 축하와 기대를 나타냈다.

대불청은 이번 선거가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매우 위험스러운 측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대학생 등록금,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계급·계층 갈등 등이 표출됐고, 일부 개신교 집단의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공개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불청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화합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주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마음으로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약자와 사회 통합을 위한 활동을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불청은 공명정대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 민족전통문화 유산 보호 및 진흥,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시장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박원순 당선자에게 보내는 불교계 메시지

박원순 후보의 당선과 함께 불교계 다양한 인사들의 바람과 기대를 들어왔다. 불자들은 불교와 서울시가 함께 공생발전하기를 희망했다.

### 복지사회 이끌어 갈 시정 기대

#### 법헌 스님 태고종 前 부원장

우리 것을 아끼는 사람의 하나로서, 우리 것에 애정을 많이 가진 박원순 후보의 서울 시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 상태의 안정을 바라는 표심보다는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의 안정적 삶을 희구하는 40대의 민심이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 금번 보궐선거의 계기가 된 복지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어린이교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의지를 북돋우는 제도적 개선과 처우를 통해 질높



은 복지사회를 이끌어 가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50-60대 지지자의 마음을 살펴 복지에 쓰일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복지의 끝점에 문화가 있으며 한반도의 문화생활을 이끌어 온 것은 불교, 유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문화다.

전통불교문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아끼고 계승 발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기 바란다.

### 반대했던 사람들과도 함께하길

#### 서울 정향사 정완 스님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인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분노한 사람들 (Los Indignados)’은 201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앞서 말한 재스민 혁명이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서구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생각의 차이가 점점 격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정당정치에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와 각 정당의 지지기반 자체의 이반 심리는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전 세계적 요구가 한국 사회에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단 한 가지이다. 전 세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지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늘 눈과 귀를 열어 다 같이 함께 걸어가자고.

### 두루두루 치우침 없는 시정을

#### 최용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축하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무소속 서울시장 탄생신화를 일구어내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서울시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기 내내 오직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후보시절 내건 공약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선행기언(先行其言), 약속이행은 신뢰의 기본이고 위정의 기본 덕목입니다.

수도 서울은 오랜 역사가 숨쉬는 곳이며 세계인의 수도가 되어야 할 곳입니다.



새로운 개발, 선진화를 내세운 도시건설도 좋습니다만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꾼 자존심 있는 도시는 더욱 좋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대부분이 불교유산이고 타종교 유적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천년 고찰은 유적 그대로 영성체험지가 되고 정신문화 부흥에 한층 다가갈 세계적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주이불비(周而不比), 두루두루 치우침 없는 시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가 내세웠던 불교 공약에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가 후보자 시절에 밝힌 불교 관련 공약을 통해 박 당선자의 당선으로 불교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해 본다.

박원순 당선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53.4%의 지지율을 얻으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함께 경쟁을 펼쳤던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는 46.2%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8.6%로 집계됐다.

박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서울 시민의 승리다. 시민은 권력을 이기고, 투표가 낡은 시대를 이겼다. 상식과 원칙이 이겼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닌 서울시 일원으로서의 승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원순 당선자는 26일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당선자는 이후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종일관 나경원 후보에 앞서면서 여유 있게 승리를 확정지었다.

박원순 당선자는 불교계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당선자는 고교시절 불광사 광덕 스님이 설립한 룸비니 학회에서 활동했고, 봉은사에서 신도회 지도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각각 만해대상과 불교인권상

## 국제선센터 1주년 기념

# 범주스님 천년선(禪)화 특별초대전

**일시 : 2011년 11월 6일~11월 20일**  
**장소 : 국제선센터 4층전시장**  
**연락처 : 02)2650-2214(센터사무실), 054)535-0378(달마선원)**